

보도자료	(주)인스웨이브시스템즈
2024년 11월 19일, 보도요청의 건	
보도자료 문의: 마케팅팀 이우진 파트장 / woo@inswave.com	

## 인스웨이브, 신기술사업금융업 진출...“100억 투자로 더웨이브캐피탈 설립”

- 더웨이브캐피탈 설립 통해 벤처캐피탈 사업 추가
- ICT 산업 중심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목표



AI·DX 전문기업 인스웨이브시스템즈(이하 '인스웨이브', 대표 어세룡, 450520)는 자회사에 100억 원을 출자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더웨이브캐피탈(TheWaveCapital)'을 설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스웨이브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을 준비 중이며,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인스웨이브는 벤처캐피탈 사업을 추가하여 ICT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모회사가 보유한 ICT 산업 경험과 더웨이브캐피탈의 전문 인력들이 쌓아온 투자 역량은 인스웨이브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ICT 산업을 핵심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모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전략적인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들에게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스웨이브 관계자는 "이번 자회사 설립은 ICT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모회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웨이브캐피탈에 초대 선임된 김종석 대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화투자증권 전략운용본부장으로 재임하며 다양한 상장·비상장 주식 및 메자닌 투자 등 기업의 지분 투자를 모두 아우르는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인스웨이브시스템즈, 트레블월렛, 열매컴퍼니 등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었으며, 엔캠, 더블유씨피, 엘엔에프 등 주요 기업의 투자 및 회수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어세롱 인스웨이브 대표는 "이번 더웨이브캐피탈 설립은 인스웨이브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AI/DX 기술을 중심으로 인스웨이브와 전략적인 협업이 가능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웨이브캐피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수의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에 맞춘 가치 증대 프로그램도 함께 모색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 (기업 정보 요약)

인스웨이브시스템즈(450520, 상장일 23.09.25)는 2002년 창립 이후, 웹 표준 UI/UX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22년 차 AI 및 DX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900여 개의 고객사와 4,00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탄탄한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AI 코파일럿 기능을 지원하는 '웹스퀘어 AI(WebSquare AI)'를 출시하여 UI/UX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에서 AI·DX 기업으로 약진하고 있다.